지정토론

☞ **청년 및 고령화 통계와 충남 지속가능 발전에의 시사점** …… 97
김재준(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선임연구원)

☞ **충남 청년실업과 외국인 노동자 현황** …… 103
김우영(공주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 …… 107
- 문화 콘텐츠·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
박준형(충남문화산업진흥원 전략사업팀장)

☞ **충남의 청년실업과 일자리정책** …… 113
김현철(충청남도 경제통상실 노사협력팀장)

청년 및 고령화 통계와 충남 지속가능 발전에의 시사점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선임연구원 김 재 준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와 청년실업, 고령화, 이민 문제

UN 인구통계(Population Prospects, 2015)에 따르면 전 세계 65세 인구수가 2010년 5.3억명에서 2020년 7.1억명으로 증가해 전 세계 인구의 약 1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물론 국가별,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가까운 미래에 아프리카와 중남미 국가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고령화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인구 전망 변화는 산업구조와 소득, 소비에 관한 의사결정이 국가경제와 세계 무역의 주요변수가 될 것이라는 예상[1)]이다.

우리나라도 2014년 전국 평균 중위연령(median age)이 40세를 넘어서면서 실질적인 고령화 사회에 본격적으로 진입하였고[2)] UN의 전망에 따르면 2040년 한국의 중위연령은 52.6세로 일본과 동일하고 독일을 넘어선 세계 최대 초고령화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3)]가 진행되면서도 특이하게 저출산과 청년실업문제가 사회경제적 현안으로 등장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2000년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청년실업,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차원의 정책 개발에는 소홀한 측면이 있으며, 지역별 노년부양비와 고령화 지수의 불평등도 변동요인과 전망에 대해서도 분석이 이루어진 경우가 별로 없다.[4)]

---

1) 우리나라 산업계가 고령화에 대비한 실버 비즈니스(수출)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한국무역의 향후 10년, 2014, Trade Focus Vol. 11, No. 4, 국제무역연구원, 한국무역협회

2) 2010년 기준 일본은 44.7세, 독일은 44.3세로 선진국 중에서도 고령화가 가장 진행된 국가들로 손꼽힌다. 그 뒤로 스웨덴, 스위스 등이 고령화 선두국가이며, 프랑스와 영국 등은 2010년 기준 39.8세로 상대적으로 고령화 속도가 낮은 국가에 속한다. 미국은 2010년 기준 중위연령이 36.9세로 선진국 중 가장 낮은 수준임. 그러나 2040년 전망에서 우리나라의 중위연령은 52.6세로 전망되어 일본과 동일한 초고령사회를 맞을 것으로 예측(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10, revision)

3) 고령화의 실태는 총인구 중에서 노년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로 파악할 수 있는데, 총인구 중 노년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이상이 되면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14% 이상이 되면 고령사회(aged society),20% 이상이 되면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라 부르는데, 한국은 2000년에 노년인구 비율이 7.2%가 되어 고령화사회가 되었으며, 통계청의 2010년 장례인구추계에 따르면 중위가정하에서 2018년에 고령사회가 되고, 2026년에 초고령사회가 된다.

4) 이헌창 외,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역별 인구분포와 변화요인의 분석과 정책과제, 2012, 보건사회연구원

[표 1. 시도별 중위연령 추계]

구 분	2000	2005	2010	2015	2017	2020	2025	2030	2035	2040
전 국	31.8	34.8	37.9	40.8	41.9	43.4	45.9	48.5	50.8	52.6
서 울	31.3	34.1	37.3	40.1	41.0	42.4	44.8	47.3	49.3	51.1
부 산	32.4	36.3	40.0	43.3	44.6	46.5	49.2	51.6	54.0	56.1
대 구	31.2	34.6	38.1	41.5	42.8	44.5	47.2	49.7	52.1	53.8
인 천	31.1	34.0	37.0	39.7	40.7	42.1	44.7	47.2	49.3	51.1
광 주	29.1	32.0	35.2	38.3	39.5	41.2	43.8	46.1	47.7	49.4
대 전	29.9	32.8	35.6	38.4	39.6	41.1	43.7	45.9	47.8	49.7
울 산	30.3	33.7	36.9	39.6	40.6	42.2	44.8	47.2	48.8	50.1
세 종	-	-	-	37.0	37.4	39.0	41.5	43.5	45.4	47.6
경 기	31.0	33.6	36.5	39.1	40.0	41.4	43.8	46.0	47.9	49.7
강 원	33.8	37.3	40.6	44.0	45.3	47.3	50.4	53.1	55.6	58.0
충 북	32.3	35.7	38.7	41.8	43.1	44.7	47.3	49.9	52.6	54.8
충 남	34.0(15)	36.5(13)	38.6(11)	41.4(8)	42.6(8)	44.2(8)	46.7(8)	49.5(8)	52.3(9)	54.8(10)
전 북	33.2	36.9	40.2	43.5	44.7	46.5	49.3	51.8	54.3	56.7
전 남	35.5	39.8	43.3	46.3	47.4	49.2	52.1	54.6	57.0	59.4
경 북	34.0	37.6	40.9	44.3	45.7	47.8	51.0	53.8	56.3	58.9
경 남	32.6	35.8	38.6	41.8	43.1	44.9	47.7	50.4	53.1	55.2
제 주	31.2	34.5	38.0	40.9	42.1	43.8	46.4	49.1	51.6	53.6

자료: KOSIS, 2017, 시도별 인구추계 자료(시도별 중위연령)

이와 같은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분석을 위해서는 시도 및 시군구 별 연령대별 전출입 통계의 상이성으로 인해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으로 이민정책을 고려할 수 있다. 우리나라 이민자 현황은 2000년대 국제결혼 급증으로 이민배경 자녀수가 2015년 20만 명을 넘어섰다. 또한 외국국적 동포의 체류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종합적인 이민자 유입 활용 합리화 정책이 체계화되지 않고 있으며, 이민자 유입의 비용-편익 및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고려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5] 또한 소규모 영세사업, 단순 저숙련 저임금 외국인 노동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어 산업구조조정과 노동시장의 왜곡 가능성이 존재한다.

국가 및 지역성장적 관점에서 이민정책은 이민수요에 대한 전략, 출산률 제고, 우수 전문인력 유입과 신산업 육성, 동포 이민자 정책 등 종합적인 제도 구축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 OECD 주요국들은 노동력 확보 차원에서 이민자를 받아들이고 있으나 경기적 영향이나 노동시장 영향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6] 특히 지역의 기술/인력 특성을 반영한 인력공급정책을

5) 이규용, 2017. 한국의 이민정책 쟁점과 과제, 이번송 노인문제연구소,

도입한 국가, 사회통합정책 측면에서 내국인 노동시장 분석을 통한 노동시장 참여 정책(이민비자이든 비이민비자이든 적응력-노동력이 입증된 이민자에게 영주비자를 부여하는 방식 선호 등) 등은 국가나 지역차원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업가정신, 창업성장론과 발전방향

앞서 본고에서는 저출산과 고령화사회 진입 문제와 동시에 청년실업문제를 언급하였다. 청년취업 문제는 이미 혁신주도형 성장 국면에 접어든 우리나라에서 기존의 규모의 경제(효율)성장 시대와는 다른 정책적·제도적 해법을 모색해야 하는 심각한 국면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청년들도 대기업과 공공기관[7]만을 일할 대상으로 모색하면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 이미 대기업과 공공기관들은 채용 정책에서 신규직원 이외에 전문가와 경력직원 비중을 점차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항은 단기적인 경쟁력 제고를 통한 성장을 도모하는 중소벤처기업도 마찬가지이다. 혁신주도형 성장정책을 통해 국민소득 3만달러를 돌파한 국가들은 그럼 어떻게 진입장벽을 돌파했을까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수식 1. 생산요소 동인 국가 성장단계별 모형]

$$Y = A(K, L, E, N) \Rightarrow Y = A(F(K, L), E, N) \Rightarrow Y = F(A(Rand\ D), F(K, L), E(R), N)$$

위 수식과 같이 경제성장은 과거의 유한한 생산요소 주도형 성장에서 효율적인 규모의 성장단계를 지나 혁신주도형 성장단계의 국가로 발전하고 있다. 구매력 평가지수로 환산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의 선진국 진입단계에서는 기업가정신 확산과 창업교육을 통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창업활동이 발전 동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8] 즉 혁신주도형 단계의 국가 성장 동력은 창업(start-up)에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책과 제도는 이스라엘과 미국, 그리고 유럽 국가들의 교육정책과 창업기업 육성제도 변화를 살펴보면 보다 명확하다[9].

6) 이민자 유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결과 경제성장률, 고령화는 양(+)의 효과, 생산가능인구 증가율, 실업률은 음(-)의 관계를 보임, 이규용, 2017. 한국의 이민정책 쟁점과 과제, 이번송 노인문제연구소,

7) 물론 아직까지 OECD 통계에 의하면 국가 중 공공부문 일자리 수는 소득 3만불 이상의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혁신주도형 성장국면에 직면한 당시 선진국들은 공공기관 일자리가 이미 확보한 경우(유럽)와 민간주도형 일자리 창출(창업수요 정책)을 시도한 국가들로 실업문제를 해결한 사례로 나눠 살펴볼 필요가 있다.

8) GEM Global Report, 2013

9) 이윤준 외, 기업가정신 고취를 통한 기술창업 활성화 방안, 2012, 정책연구, STEPI.

우리나라의 청년실업율은 9.8% (전체 실업자의 43%, 약 43만여명)에 달하고 있다[10](2016, 통계청). 공공기관 취업과 중소벤처기업 취업 정책지원으로 실업 문제의 단기적 해법을 도모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해법인지 심도 있는 고민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고 벤처창업국을 확대하여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창업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정책방향은 선진 사례에 비춰볼 때 틀리지 않은 것으로 이해 가능하나, 과연 그 내용이 옳은 방향인가에 대해서는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창업기반은 수도권에 집중[11]되어 있고 지역의 창업기반은 이제 초기 단계로 많은 기반마련과 투자가 요구된다. 물론 여기에는 인구이동과 고령화, 지역균형성장 등 복합적 요인들이 작용한다. 이와 같은 여건에서는 창업분야 정부정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역이 창업에 대한 인식수준이 낮다 하더라도 잠재력부문이 높을수록 창업성과는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12] 따라서 지역 주도의 창업기반 교육(청년창업 준비자 양성), 인프라 등의 정책개발이 창업생태계를 활성화 하는데 더욱 중요[13]하며, 나아가 청년실업과 혁신주도형 성장국가로 본격 진입하는데 필수적이라 하겠다.

충남에의 시사점

충청남도의 경우는 경기도, 제주도, 세종시 다음으로 2002년 이후 순 전입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2006년 이후 25~29세 사이 청년층의 유입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큰 차이점이며 장점이다. 그러나 이들 계층이 새로운 혁신을 이끄는 성장 기반으로 활용할 여건은 제대로 갖춰놓고 있는지 의문이다.[14]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지역의 창업성장 기반은 인프라부터 제도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화가 요구된다.
최근 연구[15]에 따르면 충청남도의 기업가정신 역량지수[16]는 서울을 제외하고

10) 통계청(2016), 전체실업률은 2016년 기준 3.6%

11) 전체창업기업의 45.6%가 수도권에 집중(2015년)

12) 지역별 기업가정신 실태비교, 2016, STEPI.

13) 김진수, 지역창업생태계와 대학창업의 역할과 과제, 2017, 창업활성화 포럼, 한국창업학회.

14) 김진수, 지역창업생태계와 대학창업의 역할과 과제, 2017, 창업활성화 포럼, 한국창업학회.

15) 지역별 기업가정신 실태비교, 2016, STEPI.

16) 한국형 지역별 기업가정신 역량지수 구성은 인식(개인적 태도, 사회적 문화, 정책체감도), 잠재력(정부기관지원, 민간투자기관, 청년창업 준비자), 그리고 성과지표(신규 기업가 비율, 기회형 창업비율, 창업밀도 등)으로 구성, STEPI. 2016

전국 최고수준이다. 또한 앞서 설명했듯이 25~29세 청년 전입율이 증가하였고, 전체적인 인구도 2006년 이후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창업성장 잠재역량이 상대적으로 풍부하다고 볼 수 있다.

충남지역은 국가 주력산업을 주도해 왔으며, 제조업 위주, 대기업 주도의 경제기반이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4차산업혁명 시대의 융복합 기술이 적용된 산업육성을 위해 필요한 기술창업 및 서비스 산업이 부진하다. 특히 타 지자체와 비교할 때 R&D 투자가 대기업 산업군을 중심으로 증가추세에 있고 창업 및 중소벤처의 R&D 투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인 점[17]은 정책지원을 통해 개선이 필요하다.

창업을 통한 혁신 성과 창출의 근본 요인은 기업가 정신이 투영된 창업가 양성(교육), 유효소비시장(혁신재화 및 서비스 수요시장 창출), 그리고 아이디어 실현을 위한 연구개발투자[18]로 정리된다. 충청남도는 청년창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잠재인력 활용도를 높이고 4차산업 시대 기존 제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해야 할 국면에 있다. 지역차원의 단기적인 정책보다는 교육, 기반구축, R&D의 체계적인 추진을 통해 중장기적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

【참고문헌】

김재준, 2014, 충남 R&D 성과분석보고서: 지역 R&D 투자의 경제적 효과분석 방법론, 충남테크노파크.

김진수, 지역창업생태계와 대학창업의 역할과 과제, 2017, 창업활성화 포럼, 한국창업학회.

박성빈 외, 2013, 국민계정 작성기준의 변경과 그 영향 - 2008 SNA 자산범위 확장결과를 중심으로, issue paper series No. 2013-17. 한국은행.

이규용, 2017. 한국의 이민정책 쟁점과 과제, 이번송 노인문제연구소,

이윤준 외, 기업가정신 고취를 통한 기술창업 활성화 방안, 2012, 정책연구, STEPI.

이헌창 외,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역별 인구분포와 변화요인의 분석과 정책과제, 2012, 보건사회연구원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의 향후 10년, 2014, Trade Focus Vol. 11, No. 4, 국제무역연구원.

GEM Global Report, 2013

Schumpeter, J. 1942,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New York: Harper & Bros.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10, 2015, UN.

17) 김재준, 2014, 충남 R&D 성과분석보고서: 지역 R&D 투자의 경제적 효과분석 방법론, 충남테크노파크

18) 국민계정에서 연구개발 부문이 중간재가 아닌 부가가치로 편재된 것은 큰 흐름의 변화였다. 세계적으로 아이디어를 실현할 기술에 투자하고 이것이 성장의 핵심요인이라는 것이 공식적인 통계흐름으로 편제되었다. 박성빈 외, 2013, 국민계정 작성기준의 변경과 그 영향 - 2008 SNA 자산범위 확장결과를 중심으로, issue paper series No. 2013-17. 한국은행

충남 청년실업과 외국인 노동자 현황

공주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김 우 영

○ 우리나라의 청년실업은 심각한 수준임. 2000년 20-29세의 실업률은 7.5%이었던 것이 2016년 9.8%로 증가하였고, 충남의 경우에도 동기간에 실업률은 6.6%에서 8.2%로 증가하였음.

○ 청년들의 취업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는 "낮은 경제성장률", "급속한 자동화 및 기술 발전", "학력-일자리 미스매치" 등이며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쉽게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음.

○ 한편, 제조업의 불황으로 인해 퇴출되고 있는 인력이 자영업으로 흡수되고 있는 것도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음.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증가하는 주된 이유는 임금 근로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임. 따라서 앞으로 청년 뿐 아니라 중장년층에서도 일자리 부족 현상은 지속될 전망임.

○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도 국내 일자리 기회를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있음. 2012년 현재 15세 이상 외국인 수는 약 114만명이었던 것이 2016년에는 143만명으로 연평균 6.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대전·충청권의 외국인 수는 그 보다 훨씬 더 빠른 연평균 7.2% 증가하고 있음. (신동호, 2017)

○ 2015년 현재 외국인 근로자는 충남이 약 35천명으로 전국의 약 6%를 차지하고 있고 최근 3년동안 연 11%로 증가하여 전국 평균 증가율 8%를 상회하고 있음.

○ 2015년 현재 내국인 대비 외국인의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와 충남으로 각각 4.59%와 4.57%임. 따라서 충남은 상대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지역이라 할 수 있음 (사명철, 2017).

○ 충남의 외국인 근로자는 주로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천안과 아산에 집중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남부권 지역인 공주, 부여, 금산 지역에서도 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외국인 노동자가 소득 및 고용에 미치는 효과

○ 경제학 이론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는 지역 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외국인 노동자의 공급으로 생산이 증가하기 때문임. 최근 사명철(2017)의 연구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가 증가하면 GRDP가 증가하지만 그 효과는 내국인 노동자의 증가보다는 작은 것으로 나타남. 그 이유는 외국인의 자국으로의 송금효과인 것으로 추측.

○ 외국인 노동자가 증가하면 내국인 노동자의 일자리는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됨. 그 이유는 외국인 노동자가 증가하면 임금이 감소하고 따라서 내국인 노동자의 노동공급이 감소하기 때문임.

○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가 내국인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기존의 연구결과는 상당히 상이함. 일부 연구에서는 내국인과 외국인 노동이 보완관계로, 일부 연구에서는 대체관계로 나타남. 최근 광주·전남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전반적으로는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가 내국인 고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기능기계조립 직종과 단순노무 직종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가 내국인의 일자리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찬영, 2017)

○ 따라서 중소영세기업에서 일하는 내국인 근로자가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에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을 것이며 이들 업종에 종사하는 청년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상황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효과가 임. 현 정부는 최저임금을 높이려고 하고 있는데 이 경우 내국인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 사이에 일자리 경쟁이 더 치열해 질 수 있다는 것임.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청년들도 더 많이 일하려고 하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가 청년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음.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충남의 노동정책

○ 현재 충남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쉼터, 상담, 역량강화 등의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음. 이들 프로그램들은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권익을 높이는 정책으로서 꼭 필요한 정책임.

○ 하지만 충남에 필요한 외국인 노동자의 수급에 대한 정책은 거의 없는 실정임. 충남에 적정 외국인 노동자의 수는 얼마인지? 산업수요는 어느 정도인지? 공급은 어느 정도 가능한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상황임.

○ 따라서 이러한 외국인 노동자 인력수급 정책을 담당할 수 있는 부서와 거버넌스가 충남도내 필요함. 특히 앞으로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고 본다면 가급적 빨리 적정 외국인 노동자 수를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임.

○ 현재 외국인 노동자는 고용허가제를 통하여 입국하고 있는데 처음 입국 시 3년을 허가받고, 사업주의 요청으로 1년 10개월이 추가되며, 성실근로자 선정 시 4년 10개월이 추가되어 최대 9년 8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해졌음 (사명철, 2017).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은 내국인 고용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외국인 노동자의 수 뿐 아니라 질을 관리하는 정책도 필요함. 지금까지의 외국인노동자는 주로 단순노무직 근로자에 치중되어 왔음. 하지만 앞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하면 우리 경제에 필요한 인력은 오히려 고급 외국 인력이며 이들의 수입이 경제에 더 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임.

○ 고급 외국 인력의 이주는 주로 선진국들의 이민 정책이며 내국인과의 대체효과를 줄인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한 방향임. 하지만 이 역시 산업수요와 외국인력 공급에 대한 정보가 선행되어야 함.

○ 외국인 노동자의 수급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충남도 차원에서 적어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산업수요 (인력의 수와 종류)를 정기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청년실업 뿐 내국인과의 일자리 경쟁을 축소시킬 수 있을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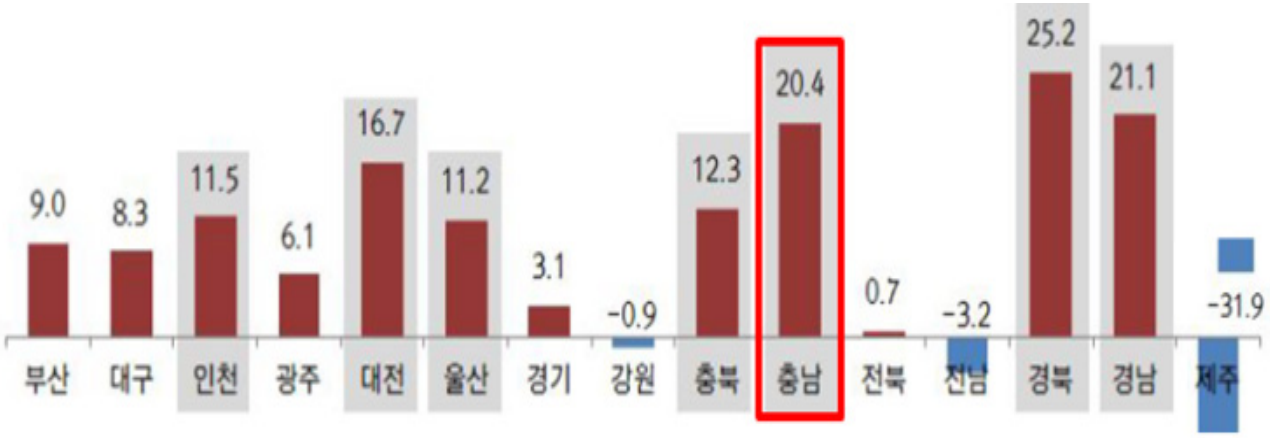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
-문화 콘텐츠·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전략사업팀
팀장 박 준 형

❑ 충남의 문화 콘텐츠 산업의 특수성

○ 충남 문화 콘텐츠 산업 매출액 연평균 성장률 _ 한국콘텐츠진흥원 2015년 발표 기준

-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 솔루션 산업의 11개 분야 / 서울을 제외한 15개 광역단체 중 3위
- 기업 3,416개(3.3%), 매출액 728,630백만원(0.7%), 종사자 9,294명(1.6%)



○ 서울, 경기 다음으로 가장 많은 문화 콘텐츠 산업 전공학과 보유

- 도내 25개 대학, 216개 학과에서 매년 10,444명 배출

○ 문화 콘텐츠 산업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발굴·유지되는 청년 CEO

- 충남도는 충남경제진흥원, 충남 TP,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지역 대학들과 함께 2011년부터 만 39세 이하의 창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현재 7년차)
- 특히, 문화산업 분야는 경력단절 여성들의 핸드메이드가 특화되고, 4차 산업혁명 시기의 트렌드에 맞는 3D 프린팅 제조·교육, 드론 분야의 지속적인 창업 도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6년 평균 69.81%의 높은 유지율을 보임**(17년 5월 기준)**

구분	문화산업 분야 창업지원 현황					성별		지원 금액 (백만원)	실제 창업	'17년 현재 창업 유지율	
	ICT	핸드 메이드	전문 서비스	기타	합 계	남	여			유지인원	유지율
'11년	5	9	6	4	24	13	11	700	22	7	29.17%
'12년	1	8	8	3	20	11	9	44	19	6	31.58%
'13년	0	13	3	1	17	9	8	156	17	10	58.82%
'14년	0	18	7	2	27	8	19	212	21	17	80.95%
'15년	10	23	6	7	46	23	23	219	45	37	82.22%
'16년	3	18	11	4	36	16	20	218	35	34	97.14%
합 계	19	89	41	21	170	80	90	1,549	159	111	69.81%

○ 지속적인 국비확보 노력을 통한 충남 문화산업 인프라 조성

- 2009년 천안 구도심 일원을 충남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받고, 충남문화산업 진흥원이 인프라 조성을 위한 다양한 국비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성과 창출

사업명	주요내용	사업비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 시민 스스로 만드는 문화도시 : 다양한 문화거점 조성 및 소규모 장르 지원, 창의인재 양성 및 창작활동 지원, 선도그룹 네트워킹 등	5년간 35억
충남 콘텐츠 코리아 랩	○ 창의인력의 성장과 발전을 주도하는 특화선도형 콘텐츠코리아랩 조성 - 충남 문화자원의 새로운 DNA 발굴, 특화된 융복합 콘텐츠 제작, 창의인재 · 콘텐츠 · 산업의 집중 육성(디지털제조, 핸드메이드, 미디어 아트 등)	매년 20억
음악 창작소	○ 충남의 뮤지션 발굴 및 네트워킹, 창작 · 공연 · 엔지니어 지원 등	1차년 20억 이후 매년 5억
웹툰 창작체험관	○ 충남의 웹툰 작가 발굴 및 프로모션, 파일럿 제작 지원 등	매년 0.6억
스토리 랩	○ 스토리텔링 아카데미 운영, 충남 창작 스토리 · 작가 발굴 및 지원	매년 1.45억

❑ 문화 콘텐츠 ·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한 제안 배경

○ 경제 저성장, 청년실업, 외국인 노동자 증가로 인한 문제점 발생 등은 그간 지속적으로 대두되어 온 사안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었음

- 모든 중앙부처, 지자체, 대학들이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파급력 있는 성과가 창출되지는 못함

► 부정적 측면 : 취직을 위한 단순 커리어 쌓기, 지원금의 방만 운영, 먹튀 논란 등

► 긍정적 측면 : 지역에서 노력하고 정착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출현, 경력단절 여성들의 창업활동 참여 증가, 지역의 새로운 리더로 성장

➡ 사업들 대부분이 창업 공간·활동비·전시-비즈 마켓 참여 지원 사업임

○ 단순 창업지원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사회현상과 흐름을 고려해 청년 창업의 패러다임을 전환려는 노력이 필요

- **주요 트렌드와 이슈 : 4차 산업혁명,** 메이커 운동, 스마트, AR·VR, IoT, AI, B+ 프리미엄, **1코노미(1인 경제),** 욜로 라이프, Calm-tech(보이지 않는 배려기술), 헬스케어, **인구절벽,** 고령화, 지방소멸 등
-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환 가능한 새로운 청년 일자리 창출 패러다임 영역**

► 4차 산업혁명 + 메이커 운동, 융복합 비즈니스 플랫폼, 스몰 비즈니스 등

➡ 기존 산업들과 연계된 고용창출은 유지하되, 융합이 용이한 문화 콘텐츠·서비스 산업 영역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

❑ 충남의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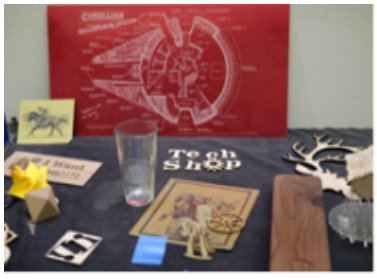
① 4차 산업 혁명과 연계한 메이커 운동 도입 및 확산(창업 환경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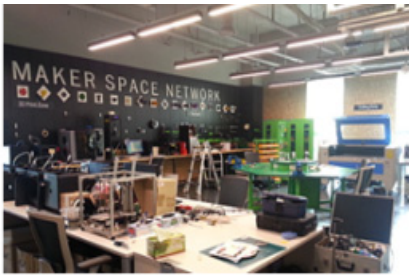
-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은 지나치게 제조업과 기술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외국의 경우는 자연스러운 생활문화 속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

► 영국 : 정보기술에 집중하고 있지만, 바탕은 유아들의 코딩교육에서 시작

► 미국 : 2005년 창간한 make라는 잡지와 함께 메이커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

- 공예, 예술, 엔지니어링, 소규모 DIY, 과학 실험 등을 중심으로 메이커 스페이스를 꾸준히 늘여가고 있으며, DIY 산업과 1인 창업을 정책적으로 지원
- 기술혁신을 통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메이커들과 그들의 다양한 프로젝트가 미국 제조업의 기초가 될 것(2014. 오바마)





- 1. 충남 지역의 유휴 시설·공간들을 활용해 메이커 스페이스 설치

► 공간구성 : 거창하게 할 필요 없이 각 장소들의 상황에 맞게 기본시설만 조성

- 사용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장소로 테크 샵·카페, 공작소, 출력소 등의 자유로운 컨셉으로 구상하며, 작업·네트워킹이 가능하도록 구성

► 도입장비 : 3D 스캐너·프린터, 레이저 커팅기, 아두이노를 기본으로 하며, 그 외 작업 도구는 필요와 성격에 맞게 도입

- 유지·보수·관리가 용이하고, 누구나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보급형 장비를 사용하며, 필요시 지역의 기존 시설(대학, 콘텐츠 코리아 랩 등) 활용

- 2. 메이커 프로젝트 지원

► 사용자들이 희망하거나, 공공영역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이템, 수익발생이 가능한 프로젝트들을 발굴하여 상용화가 가능하도록 지원

- 3. 메이커 창업 지원

► 메이커 프로젝트 지원을 통해 발굴된, 사업화가 가능한 아이템은 적극적인 사업화 지원을 통해 메이커의 창업으로 자연스럽게 연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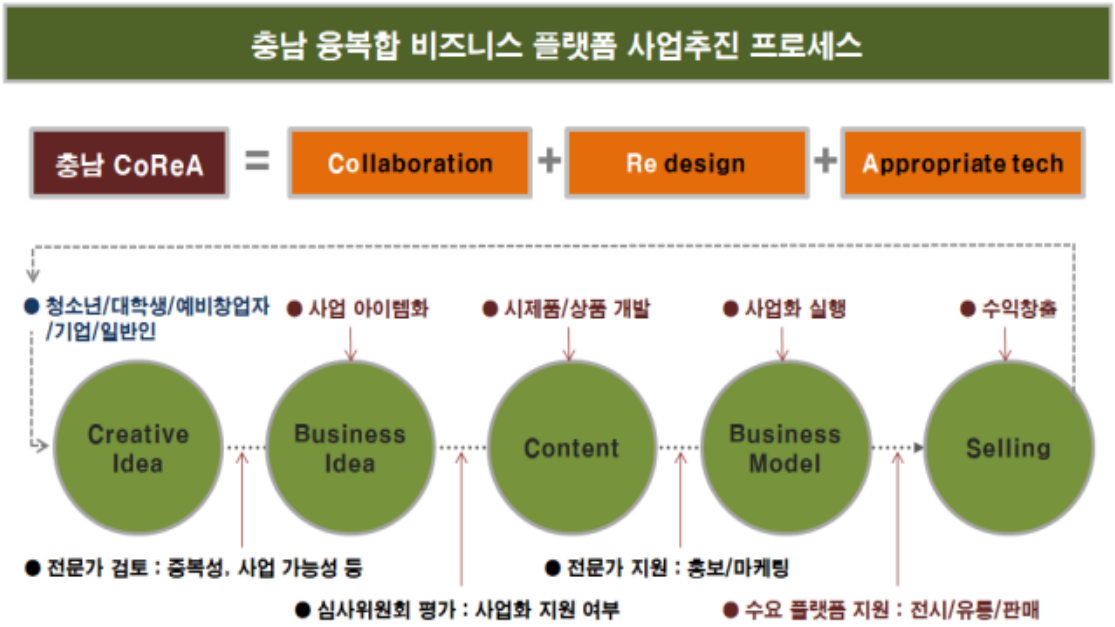
➡ 타겟 : 초·중·고·대학생을 1차 타겟으로 하고, 해당지역 주민 모두로 확대

➡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을 통해 핸드메이드·DIY 장르를 특화하고, 메이커 프로젝트·창업 지원까지 자연스러운 흐름을 만들어 주어야 함

② 문화 콘텐츠·서비스 산업과 연계한 융복합 비즈니스 플랫폼 운영(실행)

- 충남 도내 창의인력의 성장과 발전을 주도하는 특화 선도형 융복합 비즈니스 플랫폼을 조성하고, 충남의 산·학·연·관과 연계해 문화벨트화 추진

► 창의인재의 상상력을 융복합 문화콘텐츠로 개발·산업화 하여, 창의적 아이디어가 돈이 되는 신성장 동력 기틀 마련



- 3대 전략 9개 중점 추진과제

전략분야	중점추진과제	주요내용
Collaboration (연계/융합)	① 창의 클라우드	- 산업화가 가능한 타산업/장르간 융합 프로젝트 지원 사업 - **Project 31 :** 산·학·연·관 협업 프로젝트 지원
	② 창의 브릿지	- Art & Technology 분야의 미디어 아트 전문가와 콘텐츠 제작 지원 - **Rookie 31 :** 국내 작가들을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프로젝트와 연계 ※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은 아르스 일렉트로니카와 함께 매년 1건씩 협업 프로젝트 진행 중
	③ 창의 페스타	- 창조경제와 관련한 융합 콘텐츠·사람과의 교류전 - **Exhibit 31 :** 31개의 테마를 소재로 한 창조·융합 페스티발
Re design (개선/만듦)	④ 창작 챌린지	- 개선이 필요한 충남의 문화자원과 기업이 보유한 콘텐츠 재창작 - **Re design 31 :** 개선을 통해 산업화가 가능한 콘텐츠 재창작 지원
	⑤ 창작 워크룸	- 충남의 문화자원, 환경, 버려지는 것들의 재생 및 상품화 - **Up cycle 31 :** 문화자원, 환경, 에너지 분야의 재생 프로젝트
	⑥ 창작 스팟	- 충남의 4대 권역별로 창작 스팟을 조성하여 일반인들과 어울림 구현 - **Good zone 4 :** 기초단체와 연계해 창작이 가능한 핫 스팟 조성
Appropriate tech (찾기/적용)	⑦ 공유 파인딩	- 국내·외 적정기술이 필요한 장소, 적용 가능한 아이템과 기술 찾기 - **Discovery 60 :** 적정기술 전문·보유자로 구성된 발굴단 운영
	⑧ 공유 메이커	- 공유 파인딩에서 선별된 아이템에 대한 적정기술 연구 및 개발 - **Create 30 :** 시제품 개발, 테스트 지원, 산업화 가능여부 검토
	⑨ 공유 팩토리	- 공유 메이커에서 개발된 적정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고 확산하기 - **Apply 30 :** 적정기술 결과품 생산, 현장 설치 및 적용, 결과 확산

③ 스몰·착한 비즈니스 도입과 실험

- 일본 후지무라 야스유키의 지방에서 일자리 만들기 / 3만엔 비즈니스

► **후지무라 야스유키 :** 비 전자 공방 대표, 일본대학 공학부 석좌교수로, '지방에서 일자리 창출 학원'을 운영하며 스몰 비즈니스 가치와 풍요 방식을 전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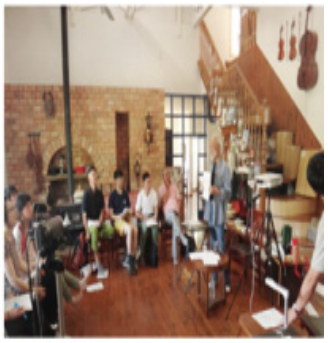
► **3만엔 비즈니스 :** 지방에 일이 없으니 사람이 줄어들고, 사람이 줄어들면 더 일이 없어지는 악순환을 끊고자, 후지무라 교수가 실험해 성공한 사례

- <u>지역에서 돈이 되는 비즈니스를 창출해 2일 만에 3만엔을 벌고, 나머지 시간은 자유를 누리거나, 공공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기</u>
- 규칙 : 이웃과 사회가 행복한 일 찾기, 착한 사람들이 구매할 제품과 서비스에 관심두기, 소비가 적은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 부업이 아닌 겸업을 하라, 한달에 3만엔 넘게 이익이 남는 사업은 다른 사람과 이익을 공유, 감동적인 상품 만들기, 면대면(face to face) 사업 추구, 대출을 받지 않기, 다 함께 만들기, 워크숍과 세미나를 통해 서로 생각을 공유할 것(내 아이디어를 훔쳐 가서 서로 공유하라)

► 후지무라 교수는 1,500개의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있으며, 제자들은 800개 이상의 비즈니스를 만들어 냄

- 왕겨 단열 판넬, 유기농 장터, 쇼핑 대행 서비스, 자동차 배터리 재충전, 빗물 비즈니스(빗물로 화장실 물을 내리게 하는 기계) 등

► **비 전자 공방 :** 1만평 규모의 땅에서 자유롭게 집을 짓거나 일을 하면 됨, 연간 3천명 이상이 방문 / 10년간 650명 제자 배출



❑ **충남도의 환경에 맞게 3만엔 비즈니스를 적용**

○ **충남도·각 기초단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대지·폐교 등을 파악하고, 사업을 희망하는 기초단체 1곳을 선정하여 시범사업 실시, 이후 효과성 있는 사업으로 판단되면 충남 전역으로 확대**

- 대상 : 충남도에 정착을 희망하는 청년층(만 39세 이하)
- 비즈니스 장르 : 수익 발생이 가능한 모든 장르(청년 농사꾼, 청년 발명가, 농가 레스토랑·카페, 동물농장, 푸드 스타일리스트, 공방, 순수예술 활동 등)

충남의 청년실업과 일자리정책

충청남도 경제통상실 노사협력팀

팀장 김현철

MEMO

MEMO

MEMO